

북한 여성의 '자수'로 타진한 남북 분단의 한계와 가능성

함경아 'Phantom Footsteps'

초대형 검은 화면 속에서 화려한 상들이 추락하고 있다. 찬란한 상들이 불빛은 하강의 진동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더욱 영롱하게 빛난다. 어떤 매체이길래 이처럼 세밀한 표현이 가능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수다. 한땀 한땀 수놓은 자수가 상들리에는 물론, 검은 바탕을 모두 메우고 있다.

4일부터 국제갤러리(서울 삼청로)에서 열리는 함경아 개인전 'Phantom Footsteps(유령의 발자국)'는 2008년부터 진행해온 북한 자수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함씨는 중국을 통해 밑그림을 북한 자수 공예가들에게 보내 작품으로 완성한 뒤 돌려받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보통 1년씩 걸리거나 돌아오지 않는 작품 속에는 북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연작들.

국제갤러리 제공

한 여성들의 집약적 노동, 제3국을 경유하는 분단국 특유의 소통 과정이 숨어 있다. 그래서 상들리에 연작 5점의 제목은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이다.

함씨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북한 카드섹션 광경을 보게 됐다. 권총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방송 카메라가 이를 클로즈업하는 순간, 한 소년이 컬러차트 사이로 일

굴을 뺨뺨히 내보였다가 재빨리 사라졌다. 이때 작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매끈한 선으로 보이는 장면을 색과 픽셀이 보일 때까지 계속 확대해 자수 밑그림을 그렸다. 거대한 상들리에는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서구 열강의 문화적 영향력, 그들의 사회적 공간을 연상시킨다. 열강의 각축 속에서 타의로 진행된 남북

분단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을 흔들리는 권력, 이념이나 담론의 불안정성에 빚대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전체가 우리 시대의 한계와 가능성을 기록하는 작품"이라는 그는 '북한 손자수, 면 위에 견사, 중개상, 근심, 검열, 나무 톱, 약 3700시간/4명'이라는 매체 설명을 달았다.

함씨는 2008년 '병풍 베라 1'으로 자수 회화 작업을 시작했다. 우연히 집 앞에 떨어진 베라를 발견하면서 북한 주민들과의 대안적 소통을 구상했다. 2009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 폭발 장면을 북한 손자수로 제작한 'Such Game(그런 경기)' 연작을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에 출품하는 등 해외 무대에서 일

부 선보였으나 자수 회화 대표작을 모두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자서비스 시리즈' 역시 주요 연작이다. 작가는 포토샵으로 일그러뜨린 다양한 원색 이미지 속에 'Are you lonely too?(당신도 외로운가요?)' 'Money never sleeps(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Imagine(상상하라)' 등의 문구를 숨은 그림처럼 넣은 밑그림을 북한에 보냈다. 베라를 패러디한 주문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은밀한 말걸기를 시도한 것이다. 함씨는 "흔들리는 중심부(상들리에)와 부상하는 주변부(문자서비스)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7월5일까지. (02)735-8449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